

15. 왜변(倭變) 물리친 남수각(南水閣)³¹⁾

- ◎ 천형병자(天刑病者)가 살아 무시무시하던 골짜기
- ◎ 난군대장(亂軍大將) 김낙영(金洛榮)은 군중에게 몰매 맞고
죽어

지금 남수각(南水閣) 하면 우선 떠올리게 되는 것이 상습 침수(浸水) 지역일 것이다. 호우가 쏟아질 때마다 으레 물난리를 겪는 곳이 남수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적 유래를 모르는 사람은 물 넘칠 ‘남수각(濫水閣)’으로 인식하기가 쉽다.

그러나 지금 50대가 넘는 사람으로 제주성내서 자란 사람이면 좀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지금 50대가 넘는 사람들의 소년기 때는 남수각은 근처에 집 한 채 없었고 인적조차 찾을 수 없는 으스스한 골짜기였다.

깎아지른 언덕이 양쪽으로 절벽을 이루고 소나무와 그밖에 많은 나

31) 『한라일보』 제84호 (1989. 07. 29).

무가 우거져 대낮에도 어두컴컴하였다. 그러므로 혼자서 이곳에 들어가려면 으스스한 기분이 저절로 일어나는 곳이었다.

16세기 말 수문(水門) 세워

이 남수각이 소년들에게 더욱 무시무시한 골짜기로 인식된 데는 또 다른 사연이 있다. 그것은 그곳에 문둥이들이 살고 있어 그들은 그 천 형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어찌구 한다는 식의 루머가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말이었지만 그 시절에 그게 곧이 들렸던 것이다.

그게 나병 환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 그곳에 사람이 살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우리들은 병정놀이를 한다고 같은 또래들이 몰려다니다가 그것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는데 여럿이 어울린 힘을 빌어 그 굴속을 살피다가 화덕, 냄비, 자리떼기들이 널린 것을 보고는 기겁을 하여 도망친 일이 있었다.

그때는 여럿이 함께 행동할 때였으므로 그래도 나은 편이었다. 언젠가 필자는 병정놀이를 하다가 몰리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그곳을 지나야 할 때가 있었다. 잔뜩 소름이 끼쳐 지나는데 바로 그 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과 마주친 것이다. 이번에는 달릴 수도 없었고 태연한 척 걸어 나오는데 일각이 여삼추(如三秋)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신에 식은땀이 쪽 배어 있었다. 그 뒤로 필자는 아마 스무 살쯤 될 때까지는 그 골짜기에 다시 발을 들여 놓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골짜기를 남수각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1599년(선조 32) 목사 성



1927년의 홍수로 파손된 뒤의 남수각(南水閣) 홍예교(虹霓橋) | 이 뒤로는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었다.

윤문(成允文) 당시에 이곳에 홍문(虹門)을 세우면서 부터로 생각된다. 이 때 제주성을 5척 높여 쌓으면서 남북 수문(水門)을 축조하고 이 남수각 서쪽 언덕에 제이각(制夷閣)을 세웠다.

그러나 1652년(효종 3) 8월의 홍수로 남북수문이 한꺼번에 유실돼 버렸다. 당시 목사 이원진(李元鎭)이 그해 겨울부터 이듬해 봄에 걸쳐 다시 수축하였으며 1720년(숙종 46) 목사 민제장(閔濟章) 때도 개축공사가 이루어졌다. 그 뒤 1886년(고종 23) 7월에는 또 홍수로 이 수문이 무너져 버리고 그 이듬해 목사 심원택(沈遠澤)이 다시 개조하기에 이르렀다. 이 수문이 일제 때까지 보존되었으나 이것마저 1927년의 홍수로 무너져 버렸다. 이때는 이미 성 자체를 허물 때였으므로 다시 수문을 복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알고 보면 이 남수각은 제주 성내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연은 안은 현장이기도 하다.

1555년(명종 10) 6월의 왜변(倭變)으로 제주성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곳이 바로 이 골짜기였다. 이때 목사 김수문(金秀文)은 정로위(定虜衛) 김직손(金直孫)을 비롯하여 갑사(甲士) 김성조(金成祖)·이희준(李希俊), 그리고 문시봉(文時鳳) 등을 중심으로 70명의 특공대를 편성하여 적에 대치하도록 했다. 이들은 험준한 남수각의 지세를 교묘히 이용하여 적을 골짜기로 몰아넣고 일제히 협공을 가했으므로 선봉장이 사살되고 적의 주력부대가 완전히 궤멸되고 말았다. 이 싸움에서 살아남은 적은 뿔뿔이 흩어져 패주하였으며 아군은 큰 전과를 거두었다.

방성칠(房星七) 난(亂)이 터지고

1898년(광무 2) 3월 방성칠(房星七)난 때는 난군을 진두지휘 했던 한 대장(大將)이 여기서 군중에게 맞아 죽기도 하였다. 애초에 민란이 일어났을 때 방성칠은 유배 중인 적객(謫客)들을 포섭하려고 했다. 이때 호응하여 가담한 사람이 김낙영(金洛榮)과 최형순(崔亨淳)이었다.

이들은 각각 좌우대장(左右大將)이 되어 이른바 어남군(御南軍)을 지휘했다.

이들은 제주성을 점거하고 관리들을 응징하였으며 목사 이병휘(李秉輝)는 난군에게 물매를 맞고 부상을 입은 채 간신히 도망쳐 피신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일본으로 망명할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 기

미를 알아차린 도내 유지들과 일부 적객들이 비밀리에 창의군(倡義軍)을 태동시켰다. 이 와중에서 난군의 대장이었던 최형순은 전향하여 하루아침에 창의군의 선봉장으로 변신하고 있었다.

사연 많던 비밀(秘密) 통로

방성칠 일당이 배를 띄웠다가 풍랑으로 되돌아오는 사이 창의군은 드디어 1천여 명이 꺾기하여 성을 회복시켜 놓았다.

방성칠은 이때 민가에 숨었다가 발각되어 도피하려다가 다시 붙들려 여러 사람에게 난자당하여 죽었으며 강벽곡(姜辟穀) 등 주동자 7명도 모두 피살되었다. 이 난리 통에 김낙영은 최형순을 죽이려고 몰래 성에 숨어들어 왔다가 군중에게 쫓겨 마침내 남수각 성상까지 물리게 되었으며 막다른 절벽에서 성 아래로 떨어졌다. 이를 본 민중이 우르르 몰려들어 몰매를 퍼붓고 마침내 맞아 죽었다. 참으로 비참한 최후였다. 방성칠이 일본으로 망명하려던 음모는 모두 김낙영의 사주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성 3문(門)과 수구(水口) 2문(門) 가운데 이 남수구(南水口)는 바위와 나무가 덮여 몰래 접근하기가 용이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이 통로는 늘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몰래 드나드는 길목이었다. 반면에 경계도 그만큼 삼엄했던 곳이다.

제주성 5개의 육수구(陸水口)를 통틀어 이곳만큼 많은 애환(哀歡)이 서린 곳도 없으리라고 생각된다.